

고란샤의 역사

후카가와 마타시로(생몰년 미상)는 자기 생산을 간분 연간(1661~1673)에 시작했습니다. 가업이 성장하면서 초대 후카가와 에이자에몬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인 8대 후카가와 에이자에몬(1832~1889)은 1870년대에 3명의 동료와 함께 고란샤를 설립했습니다. 8대 후카가와 에이자에몬은 일본 최초로 자기로 된 전기 애자를 제조하는 데 성공하여 1870년대 전반에 이미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급격한 근대화가 진행되던 이 시대에 일본 정부에서는 산업용 애자를 일본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에이자에몬이 만든 애자는 동쪽의 요코하마와 서쪽의 나가사키를 연결하는 전체 전신선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애자로 얻은 이익은 자사에서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후카가와 에이자에몬의 도자기 공방 등 아리타 지역에 있는 도자기 공방은 근대 일본 정부가 참가한 첫 국제 전시회였던 1873년 빈 만국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2년 후, 일본이 국내 산업의 근대화 및 서양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8대 에이자에몬과 동료 3명은 초대 고란샤(합본조직 고란샤)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해 말 무렵에 궁중 납품업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듬해 1876년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에서 전시회를 열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878년 파리 만국박람회에는 8대 에이자에몬이 참가했으며, 고란샤는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1879년, 초대 고란샤는 현재의 주식회사 고란샤의 전신인 고란샤(고란 합명회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규슈 최초의 근대 법인이며, 전기 애자, 자기 미술품, 파인 세라믹이라는 세 종류를 중심으로 생산했습니다.